

### “마곡사 선거 문제, 신속하게 법 집행하라”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운영위, 8월 27일 성명서 발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이 금품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도법)가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결사추진본부는 8월27일 열린 제2차 결사운영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비승가적 구대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마곡사 금권선거의 검찰기소를 보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2012년 선거법을 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노력했으나 일부 후보자와 선거권자의 중립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종단 사정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은 종도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평을 받고 있다”며 “급기야 작금에 이르러 종단내부의 비승가적 선거문화에 대해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종단 자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결사추진본부 운영위원회는 “부실한 관리운영으로 인해 다가오는 중앙총회의원 선거 또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깊은 성찰과 공심을 가지고 대의기관인 중앙총회 의원으로서 자질과 원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책모임인 삼화도량(회장 영담)은 결사본부의 이 같은 성명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현 주지 스님에 대한 면직도 촉구했다.

삼화도량은 논평을 통해 “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매우 시의성 있는 지적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징계위는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한 면직 또는 직무정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 조계종 노동위 2기 출범...위원장 혜용 스님

지승 스님 3일 위촉장 수여

조계종 제2기 노동위원장에 전 종교평화위원장 혜용 스님이 선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9월 3일 위원장 혜용 스님을 비롯 부위원장 덕본 스님, 권승복 위원 등 제2기 노동위원 11명을 위촉했다.

혜용 스님은 “전임 위원장인 종호 스님께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노동계 신뢰를 구축한 만큼 2기 노동위 역시 그 기반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원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위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 노동현장에 있어서 성소수자 차별문제 토론회, 비정규직 학술 토론회, 종교간 노동문제 대응기구 구성, 연말 노동자 동사법회, 노동자 명상, 심리상담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것

은 2년 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노동자들 편에서 열심히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기 노동위 위원은 당연직인 정문 스님(총무원 사회부장), 혜용 스님(전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덕본 스님(용주사 사회국장), 도철 스님(경산 불광사), 동환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생), 효록 스님(중앙승가대 감사), 제마 스님(중앙승가대 박사과정) 등 7명과 권승복(전 공무원노조위원장), 박문진(전 민주노총부위원장),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백신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씨 등 재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사업을 집행할 집행위원으로는 철도, 지하철, 공무원,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보건노조, 노동자심리상담, 노무사 등 다양한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9명의 노동자를 비롯해 빈곤, 문화예술, 성소수자 인권 운동 활동가를 포함해 15인으로 구성됐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9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이 2기 조계종 노동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선출된 혜용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 “총무원장 직선제, 사부대중 힘 모으자”

9월 2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연대회의 출범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회의가 발족했다.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을 비롯해 불교 각계 인사들은 9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연대회의의 발족식을 갖고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연대회의의 발족식에는 발기인인 조계종 前호계원장 법등 스님, 前호계부장 도진 스님, 삼화도량 회장 영담 스님, 학담 스님, 前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前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성총 스님, 정상욱 前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등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법일, 경성, 혜림, 장명 스님 등 전현직 총회의원과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대회의를 대표해 법등 스님은 “지난 15대 총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실현되지 않은 총무원장 직선제를 16회 총회가 되기 전 공론화시키기 위한 모임”이라며 “선거 공약사항임에도 마지막 총회에서 상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현 제도에서는 많은 종도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법등 스님은 이어 “공론화 단계가 필요하기에 16대 총회가 구성되기 전 종도들의



발족식 이후 참여한 스님들과 재가단체 대표들이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에 동참하는 서명을 보이고 있다. 연대회의는 발족식 이후 16대 총회의원 출마자들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참여정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선제 분위기가 확산돼 전반기에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94년 종단 개혁은 87%가 원한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현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이었다”며 “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자승 스님 공약으로 직선제 실현을 제시했지만 198회 임시회에 올라온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

을 거치지 않았고, 결국 원점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종단 민주화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원용화합의 향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의응답에서 직선제의 범위에 대해 영담 스님은 “상좌를 둘 수 있는 승랍 10년을 직선제 선거권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며 “재가자 선거권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의 문제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영담 스님은 “향후 16대 총회의원에 출마하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서명을 받을 계획이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발기인으로 참여한 명진 스님은 “먼저 선거를 통해 총무원장을 뽑자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예전 총무원장에 집중된 권력이 직선제 이후 330여 명으로 나뉘었지만 역시 돈·이권에 얽혀있다. 조계종이 돈과 연관 안 된 곳이 어딘가는 실랄한 비판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등 스님은 “현행제도에서는 각 교구별로 본사 주지 외에 9명씩 선거권을 갖는데 대부분 매번 참여하는 이들이 하기에 참여

승랍 10년 기준, 직선제 도입 골자  
16대 총회 출마자 서명, 대중 홍보  
작은 총무원 기치로 연대 ‘발돋움’

하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이 많았다. 모든 이들에게 선거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대회의 측은 이날 3원 체제 개혁에 대해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 측은 “94년 개혁 당시 논의된 완전 교구제가 목표”라며 “총무원은 감사권과 호법권 정도를 지닌 ‘작은 총무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끝으로 “원로의원 스님들과 해마다 바뀌어야 한다”며 “상원 격으로 모든 본사에서 원로 스님을 모시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원로 스님들에게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인사들은 직선제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노덕환 기자

## “부채 책임자 문책 없이 종단 화합 어렵다”

도산 스님 9월 2일 담화문 발표  
“경책 달게 받겠다”... 퇴진 없어  
“2년 시간 준다면 부채 해결할 것”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9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원로회의의 큰 스님들의 우려가 담긴 퇴진 권고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원로회의의 스님들의 저에 대한 질타와 경책은 가슴 깊이 새기겠지만, 종도들의 영원한 개혁열망에 대한 의지는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지난 원로회의의 퇴진 결의에 대해 9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담화문을 통해 밝혔다.

서울 시간당 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중무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몇몇 소수의 스님들이 종단을 위태롭게 하는 잘못을 관망해 뿌리 뽑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경한 어조로 밝혔다.

“총무원이 징계하면 종정 스님이 사면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태고종 발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한 달에 10억원씩 수입이 창출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청문회로 인해 발목이 잡혀서 중단된 상태”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2년의 시간만 준다면 부채 해결은 자신이 있다”며 “의무금을 인상해서 경상비를 맞춰주고 외부에서도 마련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총무원장협의회는 도산 스님의 담화문 발표에 앞서 회의를 열고 △원로회의의 의결은 종단 혼란을 야기시키는 중립권 밖의 행사이므로 의결을 철회하고 원로회의의 본연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종정예하에 대한 불경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종 행위로 간주한다 △현 총회의장 직무대행인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종회 논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 등 3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주필 기자 kimj4217@hyunbul.com

‘학담평석 아함경’ 전집  
후학 위해 법보시 ‘눈길’  
삼화도량, 16개 승가대학 보시

조계종 중앙총회 종책모임 삼화도량이 《학담평석 아함경(한글서)》 12권 전집을 16개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 법보시켰다.

삼화도량은 8월 29일 삼화도량 고문인 학담 스님이 30여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등 4아함경을 이 시대에 맞게 풀어쓴 원력을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학담평석 아함경》 12권 전집을 16개 승가대학에 전달했다.

16개 승가대학은 해인사, 송광사, 수덕사, 범어사, 불광사, 쌍계사, 화엄사, 동화사, 통도사, 백양사, 법주사, 직지사 등 사미 교육기관과 동화사, 운문사, 청암사, 봉선사 등 사미니 교육기관이다.

대변인 장명 스님은 “학담 스님은 특유의 해안으로 4아함경을 이 시대 대중에게 대가설법하고자 귀명장, 불보장, 법보장, 승보장 등 4장으로 구성했다”며 “후학들이 불법의 요묘한 진리에 눈 뜰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16개 승가대학에 법보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 (사)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순수한 불제자로서 수행과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원장 석경보 / 사무총장 석도연

본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교리를 받들어 널리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석가모니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한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마음속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슬픔은 가시 수 없다. 인류의 삶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평등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에게 불안과 불평 그리고 분노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공포, 불안, 걱정, 슬픔, 불만,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괴로움이라합니다. 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통해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목표로 그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회 총본산 제등산 관음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등길 43번길 13-11 (제등리 321-2번지)  
전화 : (055)295-5100, 742-0246 / 사무총장 010-6328-2773 홈페이지 : http://www.jogyejong.org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총본산 비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전후면 사진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찰 법당 내외부 사진1매
  - 타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 2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간부 스님 임명장

문의 : ☎055)295-5100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